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2

해방직후의 乙酉文化社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신 분

徐洙玉씨

70·대한출판문화협회 부설 출판대학강사
전 乙酉文化社 편집상무

일제의 압제에서 막 벗어난 1945년 12월 “출판 사업이아말로 가장 중요한 建國사업”이란 기치 아래 창립된 乙酉文化社는 해방직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출판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을유문화사에서 30여년간 편집자로 일했던 徐洙玉씨로부터 당시의 이야기를 듣는다. 대담은 본지 편집위원 李璟薰씨가 맡았다.

— 乙酉文化社가 건국후의 우리 문화·학술계에 끼친 공로와 업적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30년 가까이 을유에서 편집일을 맡아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창사 당시의 사리와 창업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서수옥 — 을유문화사 나름의 ‘출판의 지향’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원고를 엄선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둘째 교정을 엄밀히 해서 오석이 없도록 하며, 셋째 제품생산에 지성을 다해 독자의 애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가격을 저렴히 하여 독자에게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원고를 엄선하여 정성껏 만들어 싸게 팔자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양심적인 출판을 하자는 것이었죠.

— 초창기 편집진의 구성과 그분들의 면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수옥 — 乙酉文化社에는 내분의 주춧돌이 있었습니다. 전 한국은행 총재로 사장이기도 하셨던 閔丙燾씨가 자금을 염출하는데 주력하셨고,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성은행 출신으로 현회장인 鄭鎭鼎씨가 영업을 담당하는 전무로 계셨죠. 편집은 趙豐衍씨와 아동문학가인 尹石重씨가 맡았습니다. 1948년에 제가 입사해서 보니까 조풍연씨는 「소학생」을 위시한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도서와 일반 지식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學風」을 만들고 있었고, 윤석중씨는 아동관계서적과 일반 단행본을 맡아서 편집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실무진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잡지과에서는 전국회의원이기도 하셨던 박현서씨가 「주간소학생」을, 그리고 배화여고교장으로 불문학자인

안효식씨가 조풍연씨와 함께 「학풍」을 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뛰어난 일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 출판에서 필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을유문화사의 필진선정과 섭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수옥 — 조풍연씨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다재다능한 재사로 학계의 중진들을 을유의 필진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이병도, 조윤제, 김상기박사 등을 섭외해서 ‘문화총서’ ‘대학총서’니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했죠. 특히 이상백씨는 을유문화사의 고문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을유문고’ ‘대학총서’ ‘문화총서’의 간행사를 모두 이상백씨가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 선생님의 입사동기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때의 일화를 좀 들려주십시오.

서수옥 — 예, 저는 해방을 전후로 해서 안양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고 보니 우리말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서 국어·국사 강습회에 열심히 뛰어들었고 조선아동문학협회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학급도서로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주간소학생」에 투고를 시켜 작품이 소개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잡지의 오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지적해서 을유의 편집실로 자주 보냈더니, 답신이 왔는데 서울에 오는 길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렀더니 당시 조풍연국장이 정색을 하며 반기더군요. 이름으로 봐서 여선생인 줄 알았나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사권유를 조풍연씨와 윤석중씨로부터 받았지요. 1948년에 입사해서 1978년에 나왔으니 30년을 을유와 함께 산 셈입니다.

— 1946년 1월에 창립된 조선아동문학협회는 해방과 함께 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 좋은 책을 많이 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서수옥 — 그렇습니다. 특히 「주간소학생」은 기획이 펴 잘되어서 많은 독자를 확보했어요. 정현용씨가 그림을 그렸고 다색도로 인쇄해서 양서보급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나중에 월간이 되지만 「주간소학생」은 국민학교 3학년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잡지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어교과서가 특별히 없던 때라 일부에선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죠.

— 제가 볼 때 을유문화사의 독특한 점은

“을유문화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문화총서’는 주로 이상백씨의 지문을 얻어 원고를 청탁했는데, 이병도박사 등 7~8명의 박사학위논문이 포함되어 있었죠. 6·25전까지 30여권이 나왔던 ‘을유문고’도 그때의 대학생치고 한두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서수옥씨.

민족문화의 재발견과 관련된 기획출판에 있다고 보는데, ‘조선문화총서’ ‘국립박물관연구 시리즈’ ‘을유문고’ ‘조선농업문고’ ‘조선공업문화총서’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은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요.

서수옥 — 조풍연씨와 윤석중씨가 안을 내면 민병도씨와 정진숙씨가 채택해서 출판하였습니다.

— 이른바 월북작가 작품집도 상당수 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수옥 — 홍명희의 「임격정」은 제가 입사하고 나서 판매금지 되었습니다. 책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판금이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오면 ‘원 떡 돌리듯이’ 쥐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나 정지용·김기림 등의 작품들은 그분들이 6·25후에 월북되거나 납북된 인사들이니까 그냥 판매했습니다. 정지용의 시집은 상당수의 판매부수를 기록했습니다.

— ‘조선문화총서’와 ‘을유문고’ 그리고 학술지인 「학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수옥 — ‘조선문화총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1948년경에 이미 7~8권이 출판될 정도였습니다. 조풍연씨, 윤석중씨가 기획을 하였고 이상백씨의 지문을 받아서 학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했어요. 이 ‘문화총서’에는 이병도박사 등 7~8명의 박사학위논문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菊半版의 판형으로 6·25전까지 30여권이 나왔던 을유문고는 그때의 대학생치고 주머니에 ‘을유문고’ 한권 들어있지 않으면 행세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학풍」 역시 상당히 수준높은 잡지로 평가받았는데 편집국장 겸 주간은 조풍연씨가 맡았고, 안효식씨가 실무를 주로 했어요. 학술적 내용에 근원 김용준씨가 표지화를 그렸으니 당시 지식인사회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죠.

— 을유의 중요한 업적으로 「조선어큰사전」 편찬을 꼽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서수옥 — 제가 입사하니까 협진인쇄소에서 제1권을 찍어서 벌써 나왔더군요. 그다음 제2권부터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교정심부름을 전담해서 한글학회를 오고 가면서 일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지금처럼 월부판매제가 있었다면 아마 엄청난 발행부수를 기록했을 겁니다. 3권은 제본중이었고 4권은 교정을 보는 도중에 6·25가 발발하고 그래서 「조선어큰사전」의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부산 피난중에 정태진씨 등이 을유의 요청을 받고서 서울신문사에서 나머지 교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태진씨가 서울신문사에서 교정작업을 하시면서 일요일에 양식을 구하러 가다 차량전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한글학자로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아까운 분을 잃은 셈입니다.

— 을유가 진단학회,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인연을 맺게 된 경위는 어땠습니까

서수옥 — 진단학회와 을유와의 관계는 진단학회 이사장인 이병도씨가 을유의 양심적인 출판에 대한 믿음과 간부들과의 교분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봅니다. 박물관총서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사실 「진단학보」나 「박물관총서」는 수치타산이 맞는 출판은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학자들이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성격의 출판이었으니까요. 문화사업 측면에서 기획·제작되었던 거죠.

— 6·25로 인해 우리민족이 받은 타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을유문화사에 미친 영향과 피해는 어땠는지요.

서수옥 — 전쟁전에 사육이 종로의 YMCA 건너편의 영보빌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길 건너쪽에는 소매부인 '문장각'이 있었고 영보빌딩지하에는 도매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직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윤석중씨는 미8군에서 대북선전물을 제작했다고 하고 조풍연씨는 문공부에서 일하셨고, 민병도씨는 부산에서 조흥은행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셨어요. 결국 정진숙씨만이 남아 을유를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겁니다. 영보빌딩은 전쟁과 함께 민청분부가 되었나봐요. 수복 후에 돌아와 알았지만, 그들이 후퇴하면서 방화를 한 건지 화재로 책과 장부 등 전 재산이 소각되었던군요. 저는 전라도 등지로 피난을 다니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재표 씨란 분이 하시던 '신생사'라는 서점에 '을유문

화사연락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정진숙씨, 민병도씨, 그리고 영업부직원이었다 김석창이란 분만 있어요. 얼마후에 김석창씨가 서울서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가 다시 을유에 복귀하게 됩니다. 신학기가 돼서 교과서는 만들어야했는데 지형도 없고 조판시설도 형편 없어서 박술흠씨의 영어책을 사진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본과정에서 그만 실수를 했어요.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이미 배본이 끝난 상태에서 정정하기 위해 전주와 대구등지로 쫓아다니며 일일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의 실수는 지금까지도 잊을수 없습니다.

— 수복후의 을유문화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수옥 — 환도는 했지만 사육을 마련하고 온것이 아니라서 필동에 있던 근화약품주식회사에 일단 임시로 있다가 종로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아래층엔 대구로 피난 갔던 '문장각'이 들어오고 2층은 편집부로 사무실을 배정하였습니다. 부산피난시절에도 최재서가 번역한 「주홍글씨」등 미국문화원에서 지원받은 구미신서를 몇천 권 혼자 내기도 했지만, 환도후엔 교과서도 해야했는데 인원부족이라 충원을 했습니다. 탁경숙씨란 분이 처음으로 입사해서 「한국사」교정을 거의 다 보았어요. 큰일을 한겁니다. 그러다 전에 있던 문용구·박현서씨 등이 임시로 와서 합류했어요. 이때 을유의 편집자로 공적을 많이 남긴 통역장교 출신의 안춘근씨도 문용구씨의 소개로 들어와 박술흠씨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상백씨가 을유의 자문역이었다

면 그후엔 휘문학교 교장이었던 박술흠씨의 공이 컸습니다.

— 이제 그럼 30년간을 편집자의 세계에서 사신 분이로서 우리나라 어문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수옥 — 얼마전 을유문화사에 갔더니 편집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그래요. 과거에 나왔던 '문학전집'이니 '사상전집'이니하는 것들을 컴퓨터로 수정해서 가로짜기 개정판을 만든다 더군요. 세로짜기는 요즘 독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가로짜기에 익숙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건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 제가 을유문화사를 나올때도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가로짜기가 별로 없었어요. 역대가 넘는 재정을 들여 단지 독자의 성향때문에 멸절한 책에 손을 댈다는건 낭비라고 보는데 글씨 고루한 발상일까요.

— 그럼 끝으로 출판계의 원로이신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바라는 바나 전하고 싶은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수옥 — 어려운 질문이시군요. 제 자신 교육계에 그냥 남았다더라면 지금쯤 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교육자로 남았겠지요. 을유문화사에 제가 입사할때 조풍연씨와 윤석중씨가 이래요 "교단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듯 싶소"라구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계에서 출판계로의 자리바꿈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피난시절의 실수담처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문화를 가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점에선 어느정도 자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수긍못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언제 쫓아 피고 지는지 모르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자기 일에 정열과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활태도는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출판대학으로 승격된 편집인대학에서 15년쯤 강의를 하면서 느낀 사실인데, 일부 젊은이들은 출판관계 서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것 같아요. 예를들면 용지 하나의 규격과 성질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편집자나 사주들이 많아요. 나이든 사람의 노파심일까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편집자의 자세는 늘 공부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주가 지시하는 책의 출판이 민족문화의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히 사표를 던질수 있는 자세가 올바른 편집자의 모습일거라고 봅니다.

— 바쁘신 시간에 틈을 내어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정리·최태원 기자

당신은 혹시 광인이 아니십니까?

어느날 문득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태양빛 따가운 굳은 땅 위에
홀로 서 보십시오.

그럴 때 ... 당신은 ...
상식과 예절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수한 모순들이 부셔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우화집

어느 광인의 이야기



칼릴 지브란·권국성/값 3,000원

광인과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자유의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버튼식 전화기(MFC)로 (02) 151번을 누르고 신호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사서함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들은 뒤 2242를 누르시면 누구나 24시간 광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720-5990·5991

진선출판사